

- (1)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가 80장을 부릅니다. (2) 구역 식구 중 한 분이 기도합니다.
(3) 사도행전 4장 1~12절(신191)을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4) 기도제목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5) 찬송가 583장을 부르고, 봉헌한 이후 봉헌기도 합니다. (6)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구역예배를 마칩니다.

<인터넷 참조> <http://www.pckyesan.or.kr>으로 접속, 8월 9일자 주일예배 말씀

<생각하기>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심문을 받으며, 예수님을 증거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본문 5절에,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민족의 대법원이자, 국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6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를 이어 대제사장이 된,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설교의 요약>

산헤드린 공회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심문합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하나는,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예수는, 너희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취급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집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베드로가 한 말은, 원래 다윗이 한 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3천 년 전,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의 침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라이벌로 여긴, 사울 왕의 칼을 피해, 오랜 기간, 피신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 왕이 먼저 죽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가, 시편 118편입니다. 그중 22절과 23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기서 ‘건축자’는 사울 왕을, 그리고 ‘건축자가 버린 돌’은, 다윗 자신을 가리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건축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건축에 관한 한, 자신을 능가할 사람은, 있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버린 다윗을, 하나님이 취하셔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주춧돌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의 때로부터, 천 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예수님을, 메시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에서, ‘악한 포도원 농부들’에 관한 비유를 통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신 뒤,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은,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전문가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빈민 출신의 나사렛 예수는, 자신들의 방해자요, 제거할 대상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버린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로 삼으시고, 그 주춧돌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자로 삼으시고, 이생과 내생에서, 인간의 생명과 존재와 인생에, 주춧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이렇게 귀한 분인 예수를,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너희가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사, 집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인생이라는 건축물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라는 건축물이 무너지며, 예수님이 없으면, 인간의 구원이라는 건축물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를 통해, 천국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좋을 만큼,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을 팔아서라도, 예수님을 소유하는 인생이, 가장 값지고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나를 버려서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들과 바꾸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영원한 머릿돌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누기〉

1. 내가 가치 없다고 생각한 것을 주님께서 가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나요? 있다면 나누어봅시다.
2.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주님께 기도로 묻나요, 아니면 내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하나요?

〈기도〉

하나님! 내가 똑똑하다고 여겨,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여겨,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여겨, 내 스스로, 내 인생의 머릿돌이 되고자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지 않는 인생은, 반석 위에 세운, 튼튼한 집이 될 수 없고, 결국에는, 죽음과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창조자와 구원자와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재와 인생의 머릿돌로 삼고 살아가는, 예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가치 있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